

# 전도자의 삶의 참된 망대를 세운 데살로니가교회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후서- 다니엘 12:1-3, 데살로니가후서 2:1-2

정운돈 목사님

\* 단12:1-3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실후2: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준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 누리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주역이 되어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교회와 후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고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며 한국교회와 교단과 교회에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이단이 되고 실패하게 된다. 인생을 주도할 때에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성경에 기록해야 할 말씀이 있다. ‘짧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인생의 고통의 총량은 비슷하다. 맘 홀리고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지만 그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나중에 병들고 요양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경제와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신앙도 그렇다.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도 안 된다.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고 일도 주도적으로 했다. 군대는 다 끌려왔기 때문에 한 번 지시하면 이후 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군대에서 강제로 일 하듯이 다들 안한다.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새이 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다. 여러분들은 담임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 교회 전도인들은 모두 현장에서 담임목사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현상이 보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신앙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단과 임박한 종말론에 빠졌다.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다. 한 분이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갔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진짜 지폐에 대한 특징만 알려주더라. 위조지폐 감별법은 언제 알려주냐? 했더니 안 알려준다 했다. 진짜 지폐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게 위조지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가장 정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했는데 정상적으로 변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정상적으로 대처하셨다. 그러나 대부분은 큰 문제가 왔을 때 조금하게 대처하면서 더 큰 실수를 한다. 큰 문제일수록 정상적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욱 더 심해진 박해와 어려움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당하니가 어려움이 하나님과 성경보다 앞섰던 것이다. 진리보다 앞섰던 것이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세월이 지나면 다 응답을 주시는데 당시에는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반응한다. 그래 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재하신 여호와다. 홍해를 건너고 여러교를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데살로니가교회의 모습이다. 또 잘못된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는 이단들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이 잘

못된 재림신앙을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성도들도 나왔다. 대기업에 있으면 법인카드로 몇 백만 원씩 결제한다. 작은 돈은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다가 막상 자영업을 하면 십만 원, 백만 원은 엄청난 돈이다. 그걸 적용하지 못해서 10년, 20년을 날려먹는다.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밑바닥이 힘들면 하지 않는다. 모세는 80살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위기일수록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그게 복음이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무능력하다. 실수가 많고 유한하다. 인간은 죽고 많은 영적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다라는 것이다. 제가 빠지에 가서 수상스키를 타는데, 노는 애들은 돈 쉽게 벌려고 불법하고 너무나도 쉽게 마약한다고 하더라. 본격적으로 마약을 제조해서 팔지 않으면 잡아가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거룩한 척하지 현장에 한 발자국 나가면 다 그렇다. 그 현장을 살려야 한다. 인간을 몰라서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이 없으면 세상 마귀나라에 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인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다. 예배로 결론내리고 여기서 성령충만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없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급한 일이 생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특히 캠퍼트들은 먼저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3오늘과 훈련과 강단말씀과 기도를 통한 Heavenly Power 안에서 Heavenly Talent을 찾고, Heavenly Mission을 찾아 생명 건 헌신을 해야 한다. 중직자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뭐가 안 되면 일단 자격증을 따고 준비를 해라. 알차게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러킹을 할 때도 처음에는 계속 물구나무서기만 한다. 힘들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다. 몸을 바르게 서서 중심을 잡는 게 가장 기본이다. 삶과 믿음도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중의 기본이 예수는 그리스도, 천하 다른 이름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방법을 해결하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시면서 구원의 망대를 세우고 계시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절대목표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 다른 건 다 때려 치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원을 깨달았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빛을 발해보라. 주도적으로 고생해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물론 여러분이 못 되겠다고 전도 못하는 건 아니다. 나같이 못 되먹는 것도 구원받았음을 증거 해라.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캠퍼트의 삶이고,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다.

1. 먼저 잘못된 재림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기준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 왜 그럴까?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명품에는 짝퉁이 많은 것처럼 역사상 최고의 영적인 명품이 복음과 성경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사탄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사탄에게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종교처럼 영적인 작품을 악용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번다. 우리는 가짜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신다고 했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다. 기독교도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주 적다. 일본은 천주교를 포함해 1,000명 중의 한 명 꼴도 없다. 우리의 사명이 크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말씀의 바른 의미와 내용, 저자의 참된 의도를 알았다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설교 속에서 목사님의 의도를 분별할 줄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1) 첫 번째로는 몇몇 잘못된 이단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여호와왕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성령을 그냥 힘이라고 한다. 무슬림도 알라를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 옥황상제는 믿지만 그리스도는 모른다. 여호와왕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진다. ② 신천지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이만회를 이긴 자,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할 수 있으며 이만회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조건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조건이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만족해야 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만회도, 안상홍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대체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말은 잘 안 듣는데 영적문제가 있고 갈등한 사람들이다. 신천지의 절반 이상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다. 성경을 잘못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전도도 강제적으로 한다. 전도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다. 신천지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을 형성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사람을 봤을 때도 이상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알고 조심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다르다.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복음없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 흑암을 쫓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그 영적인 힘과 권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③ 약 10년 전부터는 1611년도에 만들어진 킹제임스버전 성경만이 번질되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고 '없음'이 있거나 '공란'이 있는 개역성경은 바쿠의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정동수 씨와 말씀보존학파가 있다.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버전이지만 성경을 번역한 버전이 5백 개가 넘는다. 좋은 번역본의 성경이 없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16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모두 칭교도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다. 인간이 번역한 게 오류가 왜 없겠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개역개정은 사단이 번질시켰다고 말한다. 한국은 쪽복음, 마키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았다. 데살로니가전, 후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개역개정은 200~400년의 소수본을 주로 해서 만들었고, 킹제임스 버전은 600년~천 년 사이의 다수본을 주로 해서 만들었다.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없음' 구절들이 천주교 성경들에 있었다. 천주교 성경을 참고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었다. 나중에 천주교 성경도 성경 원본을 보고 '없음'을 만들었다. 지금 '없음'이 채워져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밖에 없다. 킹제임스도 좋은 성경이다. 단지 정동수 씨와 말씀보존학파가 복음을 잘 모르던지 이권을 위해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말을 하면 틀린 것이다. 내 기준이 상식적이어야 그걸 구분할 수 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2) 두 번째로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교회에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형제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꿈이나 환상이나 우리가 받았다하는 말씀, 성경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재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게 어렵지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고 기도해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살도록 기도해야지 놀리거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깨어 있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한다. 램프는 켜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와 포로, 속국 현장에서 그들은 켜지지 않고 살았다. 앞으로 램프가 켜져야 하는 현장이다. 주도적이지 않으면 끌려 다니게 된다. 그게 서밋이다.

**2. 복음적인 삶과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의도를 알고 살아야 한다.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어도 큰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저는 게을러요, 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실하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기도 안에 다 있다.

(1)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보훈에 나와 있다. 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된 산상보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영적인 전도자의 삶과 자세 8가지가 바로 팔복이다. 팔복이 구원과는 크게 관계없다.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스스로 죄가 많음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기 쉽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매정한 자, 악한 자, 강한 자가 복 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많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②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대꾸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7장 1절로 3절에서

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7장 2절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단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미션의 말씀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2)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다. 그 대표적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9가지이다. 성령의 열매 9가지도 구원과는 특별히 관계없다. 단지 구원받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내용이다. 갈다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라도 맺어야 하지 않겠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바란다.

(3) 지금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안에서 도전해야 할 21가지이다. 즉,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면,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 21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① 갈보리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답과 결론을 찾아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이때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감람산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우리들이 가는 70현장에 이루어지면 237나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② 다음은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과 소명, 풀림을 발견할 때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사명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사명이 있어야한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③ 이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 70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보내주신다. 오직 예수로 결론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해야 한다. ④ 다음은 일심, 전심, 지속이다. 작은 일 일지라도 일심, 전심, 지속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다 문 닫으라고 했다. 계속 하시더라. 생명 거시더라. 5년 이상 생명 건 헌신을 할 때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70군데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씩 그 망대를 만들어 가야겠다. ⑤ 다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오직예수'로 결론을 내면 영육 간에 유일한 응답이 발견되고 재창조의 응답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다. ⑥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 저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주님께 수백 번 물어본다. 제 의견이다. 정리해서 하나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물어본다. 이때 하나님의 25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것이다. ⑦ 결국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 생각, 영혼까지 각인된다면 뿌리가 내려지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018년 WRC 1, 2, 3장에서 나온 RT7명의 승리의 비결 5단어, CVDIP를 데살로니가후서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① Covenant. 언약과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과 언약은 내 중심과 환경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②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237나리 5천 종족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단사상을 바로 잡아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가장 정상적이고 빛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③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④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에덴의 축복까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집중해서 묵상한다면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드는 응답과 해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⑤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려움 앞에서 조금 해하지 말고 나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성공해 보시기 바란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보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과 전도자의 삶을 통해 잘못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딸, 램프의 딸, 기도의 딸을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의 질문과 도전해야 할 237 치유 서밋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먼저 복음과 진리와 전도자의 삶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